농촌지도와 개발 vol.25.No.3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Vol.25 No.3(September 2018), 135-148
ISSN 1976-3107(print), 2384-3705(online) http://doi.org/10.12653/jecd.2018.25.3.0135

농촌지역주민 공동체의식의 지역사회참여 영향요인

– 거주기간의 조절효과 –

박덕병[a] · 임광명[b*] · 안재문[a]

[a]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지역개발학부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b]평택대학교 피어선칼리지 교수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

Factors Influencing Community Participation: Moderating Effects on Length of Residency

Duk-Byeong Park[a] · Kwang-Myeong Lim[b*] · Jae-Moon Ahn[a]

[a]Department of Community Development, College of Industrial Scie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rea
[b]Pierson College, Pyeongtaek University, Korea

Abstract

Sense of community and length of residence are important variables influencing community participation.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community participation on sense of community. Particularly, the study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n the length of residency between sense of community and community particip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130 usable questionnaires among residents of rural villages. Results of a factor analysis yielded three dimensions of sense of community which are solidarity, belonging, and emotional intimacy. Results show that all of factors among three dimensions of sense of community have significance for community participation. And length of residency has a positive effects as a moderator between community capacity and community satisfaction. Results also indicated that length of residence has an negative interactional effects with moderator. It means that even though higher belonging, less community participation if people live in longer their community. It was suggested that sense of community and length of residency should be considered in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olicy.

Key words: sense of community, community participation, length of residency, rural community

1. 서론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에서 중요한 것은 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배은석, & 박해긍, 2016; Chavis, & Wandersman, 1990; McMillan, & Chavis, 1989; Unger, & Wandersman, 1982; Wilson-Doenges, 2000). 왜냐하면 공동체의식이 높은 사람이 지역주민들과 상호작용을 더 적합하게 하기 때문이다. 공동체의식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생활공동체를 의미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상호작용과 집합의식, 감정적 동질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역사회는 단순한 물리적,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생활방식, 가치관, 신념적 특성을 포함하는 생활체계를 의미한다. 즉, 지리적으로 이웃지역과 구별되는 공간단위로서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지역과 지역 간의 상호관계는 우열의 관계를 미리 전제하지 않는다. 즉 지역적 개념 안에는 생산, 문화, 생활의 거점이라는 지리적 범위와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감정적 동질감 내지 운명 공동체적

주요어: 공동체의식, 지역사회참여, 거주기간, 농촌지역사회

* 교신저자(임광명) 전화: 031-659-8387 e-mail: lkm3719@ptu.ac.kr

ⓒ 2018 Society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www.extension.or.kr (학회홈페이지)
www.jaecd.org (저널홈페이지)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Hillery(1955)는 지역사회의 개념을 지리적 영역(geographic area), 공동연대(common tie),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의 세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많은 학자들은(Hughey, & Speer, 2002; Manzo, & Perkins, 2006; McMilan, & Chavis, 1986) 문화적, 심리적 단위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였다. 김경준(1998)도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로 연대감, 공동의 결속 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유지, 향상시키는 중요 요인으로 보았다. 이는 지역사회를 단순한 주거공간의 차원에서 삶의 의미를 주는 주거 장소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강철희, & 홍현미라, 2002). 특히 공동체의식은 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결정하여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배은석, & 박해긍, 2016).

최근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의 회복과 이웃과 함께 만드는 마을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변화, 즉 청소년일자리 부족, 맞벌이, 육아부담의 증대, 1인가구의 급증, 개인주의 문화 등의 사회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 주민들은 지역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이 자신들의 생활과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여기며, 공동체 생활에 참여함으로써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 의식이 낮아짐으로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또한 현실이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그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김경준, 1998; Chavis, & Wandeman, 1990).

특히 농촌지역사회는 공동체의식이 도시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들어 약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촌지역은 노동협동의 두레와 관혼상제에 대한 상부상조로서의 계와 같은 공동체적 전통(강대기, 2001), 대면적 인간관계가 가능했으며 비공식적 규범에 의한 동질성이 형성(박경구, 1994), 거주기간이 길어 높은 귀속성(배은석, 박해긍, 2016)으로 인하여 공동체 의식을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도시화되어가면서 공동체의식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김성균, 2002, Wilson-Doenges, 2000).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에 대한 연구는 크게 보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동체의식 그 자체를 측정하는 연구(이라영, 2009; 이형하, 2005; 예상권, 2011; 정우진, 2008) 둘째,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김경준, 1998, 당인숙, & 류진아, 2017; 박가나, 2009; 배은석, & 박해긍, 2016; 성희자, & 전보경, 2006; 신영선, 2012; 이형하, 2005; 전정미, & 박태영, 2014; 한은영, & 김미강, 2013; Hockman, 2008; Glynn, 1981; Obst, Smith, & Zinkiewicz, 2002; Wilson-Doenges, 2000) 셋째, 공동체의식을 독립변인하여 종속변인인 참여 영향을 분석한 연구(양덕순, & 강영순, 2008; 임광명, 2017; 박종관, 2012; 최문형, 2013; Chavis, & Wandersman, 1990; Davidson, & Cotte, 1989; Holiday, 2008; Kingston, Mitchell, Florin, & Stevenson, 1999; Mannarini, & Fedi, 2009; Zhao et al., 2012)이다.

특히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사회 애착도(조원섭, & 최상수, 2011; Manzo, & Perkins, 2006), 공동체 의식(양덕순, & 강영순, 2008; 박종관, 2012; 최문형, 2013; Bachrach, & Zautra, 1985; Chavis, & Wandersman, 1990; Holiday, 2008), 거주기간(Glynn, 1981; Herbez, Asami, & Lee, 2013; Lee et al., 2008; Schiff, 1990; Taniguchi, 2010; Verba et al., 1995)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거주기간은 지역사회개발에서 중요한 변수이다. 거주기간이 공동체의식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연구(김경준, 1999; 우룡, 1995; 성희자, & 전보경, 2006; Oropesa, 1992;Sagy, Stern, & Krakover, 1996; Wilson, & Baldassare, 1996)와 거주기간이 주민참여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연구(Glynn, 1981; Herbez, Asami, & Lee, 2013; Lee et al., 2008; Schiff, 1990; Taniguchi, 2010; Verba et al., 1995)가 있다. 그러나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 거주기간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역사회개발을 주도하는 현장전문가 혹은 실천가의 입장에서 볼 때, 거주기간이 공동체의식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주민참여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지역사회개발을 기획하고 실행할 때 훨씬 더 유효하다. 왜냐하면 특히 공동체의식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기능적인 능력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Glynn, 1981),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기능적인 능력은 거주기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이 높더라도 거주기간에 따라서 주민참여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농촌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발적인 참여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연구가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참여유형을 살펴보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참여유형도 봉사활동과 관련된 연구가 많다.

커뮤니티는 지역이나 장소적인 속성과 인간관계의 질이나 관계 속성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배타적인 속성은 아니지만(Gusfield, 1975), 뒤르켐(Durkheim, 1964)이 지적했듯이, 현대사회는 장소적인 속성보다는 관심이나 기술 중심으로 발전한다. 그리하여 농촌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의 유지, 존속을 위한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증진을 위한 참여유형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농촌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과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김경준, 1998; 신영선, 2012; Bachrach, & Zautra, 1985; Chavis, & Wandersman, 1990)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공동체의식의 유형을 구분하여 지역사회 참여에 어떤 유형의 공동체의식을 가진 지역주민이 참여를 많이 하는가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농촌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가 성공적인 농촌개발사업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분석하는 것이 정책입안자,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가 혹은 실무진들에게 매우 유효할 것이다. 최근 농촌마을이나 공동체에 대한 관심증가와 더불어 농촌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는 농촌지역 주민의 참여를 위한 공동체의식 유형별 참여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며, 공동체의식과 참여특성의 조절 변인으로서 거주기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공동체의식(Sense of Community)

공동체(Community)는 일반적으로 포괄적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지리적으로나 특정집단에 대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는 정신적 공동체를 말한다(채혜원, & 홍형욱, 2002). 강가영, & 장유미(2013)는 공동체를 개인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다양한 형태를 가리키는 말로 정의하면서 특정 집단이나 지리적 장소를 이르기도 하고,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가치, 정서 등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최재원(1993)은 공동체의 개념을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지역사회의 필수조건으로 공동체가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지리적 근접성, 공동유대감 중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명명될 수 있으며, 공동유대감이라는 심리적 특성을 강조할 때 지역공동체라는 용어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공동체의식에 대한 정의도 학자마다 모두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공동의식, 집단의식, 유대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성희자, & 전보경, 2006). 여기서의 집단의식, 공동의식은 동일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평균적인 주민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감정, 신념을 통해 형성되는 확고한 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경준, 1998). 이는 공동체가 유대감이나 공동의식, 공통된 감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공동체와 공동체의식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지역사회 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로 사용한다.

강용배(2004)는 고전적인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 안에서 살면서 구성원들 상호간에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사회적이고 심리적 유대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일정한 영역 안에서 지역주민 간 신뢰와 유대감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주민집단들의 단위를 지역공동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Mcmilan, & Chavis(1986)는 공동체의식 개념 속에 도시, 농촌과 같은 장소와 관련된 지역적, 지리적 개념과 함께 인간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관계적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다. 김경준(1999)도 공동체의식을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속감, 구성원들이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한 집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느낌, 구성원들의 욕구가 헌신적 노력을 통해 충족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구성원들이 장소, 역사, 경험을 고유하고 있다는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 공동의식의 개념이 구성원 뿐 아니라 장소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며,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경계 내에서 형성되는 특성이 있다. 이춘옥(2000)도 공동체는 '면대면 접촉이 가능한 정도'의 지역적 한계를 설정하여 대면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역사회공동체의 전형적인 유형이 농촌지역사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성희자, & 전보경, 2006). 공동체의식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동질성, 상호의존성, 대면적 관계, 공동의 목표 등이 농촌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오승환, 2009; Glynn, 1981).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McMillan과 Chavis(1986)는 공동체의식의 개념에 도시와 농촌과 같은 지역적(territorial), 지리적 특징(geographic)과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관계적(relational)'측면을 포함한 4차원 모델을 제시하였다. 공동체의식의 하위요소로는 정서적 유대감(shared emotional connection), 소속감(membership), 상호영향(influence), 필요의 통합과 충족(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그들의 관계가 돈독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상호작용이 좋은 쪽으로 작용할 때 소속감, 연대감, 결속감이 더욱더 강해지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와 지역사회 조직도 발전하게 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김경준(1998)이 McMillan과 Chavis 연구를 바탕으로 공동체의식 구성요소를 연대감(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한다는 연대의식), 충족감(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소속되어있다는 충만한 느낌), 정서적 친밀감(지역사회 및 구성원들과 친밀한 느

ⓒ 2018 Society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낌을 가지는 것), 소속감 및 상호영향의식(지역사회 및 구성원들이 상호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서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식, 일체감)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공동체의식을 지역사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집합의식, 연대감, 소속감, 공동의식이며 공동체를 발전시키고자하는 의식으로 보고 공동체의식 구성요소를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정서적 친밀감으로 보고자 한다.

2.2. 주민참여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과 같은 고전적 사상가로부터 다운즈(Anthony Downs)같은 현대 이론가로 이어지는 자유주의적 대의민주주의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엘리트주의 혹은 전문가주의라 할 수 있다(양덕순, & 강영순, 2008). 이들은 정치적 권위의 원천이 일반시민에게 있다고 믿지만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에는 정치적 혼란이나 우민정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인식으로 선거를 통해 시민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이 정책적 쟁점을 논의해야만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박희재, 2007 재인용). 그러나 이로 인해 시민들을 정치의 장에서 몰아내고 정치적 쟁점에 대한 공적토론과 시민의 집합적 의사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민주주의의 활력을 소진케하였다.

1991년 실시된 지방자치는 각 지역의 주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역의 공적인 문제를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해결함으로서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개발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원리라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권'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분권이 필요조건이라면 참여는 충분조건이고 지역민주주의를 이룩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사회를 형성하려면 특히 주민참여가 중요하다.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된 지방분권은 지방으로 이양된 권력이 소수의 지역 엘리트에게 독점됨으로서 지역전제주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김익식, 2003). 즉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으로의 권력이양도 중요하지만 이양된 권력, 권한이 지역 내에서 어떻게 분권이 되느냐도 중요한 문제이며 지방으로 이양된 권한의 분권은 주민참여를 통해 가능하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 구성요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Cunningham(1972)은 주민참여를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공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의도로 권력을 행사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양덕순, & 강영순(2008)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주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하였으며 이것을 통해 규범적 차원에서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주며, 지역사회의 통합기능을 강화시켜준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하에서는 사회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전제조건(박세정, 2007)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긍정적 영향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쉽지 않아 직접적 영향이 있는 사람이나 이익단체, 시민단체 등이 주민참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참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는 농촌의 발전을 위한 농촌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농촌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로 주민참여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2.3 거주기간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크게 일반적 특성요인과 주거특성요인 그리고 지역사회태도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주거특성요인에 속하는 요인이 거주기간이다. 주거와 관련된 안정성은 이웃주민들과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역사회에 초점을 둔 강한 인식과 행동을 조장하며, 풀뿌리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곽현근, 2004).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주기간에 대한 연구는 김경준(1999)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성별,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결혼여부, 자녀수와 함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체의식이 높아졌는데 특히 10년을 기점으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10년 미만으로 거주한 사람들에 비해 공동체의식이 높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고향인 경우가 가장 높은 공동체의식을 나타냈다.

우룡(1995)의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친밀한 이웃관계요인이고 친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거주기간으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친밀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영하(2005)도 대도시와 농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거주기간에 따라 공동체의식이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농촌지역 주민의 공동체의식을 연구한 성희자, & 전보경(2006)의 연구에서도 거주기간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거주기간이 길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종재, 1993; 이인혁, 2002; 김남수, 2008; 양덕순, & 강영순, 2008; Sagy, Stern, & Krakover, 1996; Wilson, & Baldassare, 1996).

지역사회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거주기간에 대한 연구로는 최선옥(2009)의 연구가 있다. 아트주민의 지역사회참여 요인이 지역사회 참여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는데 거주기간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동네 주민조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곽현근(2004)의 연구에서도 주거관련변수로 주거기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소영, & 이영순(2014)의 지역사회환경이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거주기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주민참여가 높아진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Oropesa(1992)의 연구에서는 거주기간과 참여도 간에는 선형적 상관관계가 아닌 거주 6년까지는 참여도가 높아지다가 그 이후 다시 낮아진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선행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거주기간이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거주기간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참여가 종속변인으로 설정된 연구들이다. 단지 이들 연구에서는 거주기간이 각각의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이 높더라도 거주기간에 따라 주민참여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영향관계를 분석할 것이며 이러한 시도는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공동체의식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기능적 능력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능적 능력은 거주기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2.4.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사회 애착도(조원섭, & 최상수, 2011), 공동체 의식(양덕순, & 강영순, 2008; 박종관, 2012; 최문형, 2013; Holiday, 2008), 거주기간(Glynn, 1981) 등이 있다.

양덕순, & 강영순(2008)은 지역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는데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인들이 주민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박종관(2012) 역시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연구되었다. Holliday(2008)의 연구도 공동체의식과 공동체연합 참여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 공동체의식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Zhao et al.(2012)은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인인 소속감이 가상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다른 구성원들과 지식을 나누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활동 의향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다. 배은석, & 박해긍(2016)은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참여에 영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도시와 농촌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은 농촌거주 지역주민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참여의향 또한 농촌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achrach, & Zautra (1985)에 의하면, 미국 아리조나주 픽닉스 지역의 농촌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주민 99명을 대상으로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문제중심 전략이 감정중심 전략보다 지역주민의 참여가 높았으며, 자기효능감과 공동체의식의 증가가 지역주민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표 1> 같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종속변인을 주민참여로 한 연구(양덕순, & 강영순, 2008; 조원섭, & 최상수, 2011; 박종관, 2012; 최문형, 2013; 배은석, & 박해긍, 2016; Zhao, et al., 2012; Bachrach, & Zautra, 1985; Davidson, & Cotte, 1989; Chavis, & Wandersman, 1990)와 몰입(involvement)로 한 연구(Hollliday, 2008)가 있다. 그리고 독립변인으로 공동체의식을 하나로 투입하여 주민참여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연구(양덕순, & 강영순, 2008; 박종관, 2012; 최문형, 2013; 배은석, & 박해긍, 2016; Davidson, & Cotte, 1989)가 있고, 공동체의식을 독립변수 중에서 하나로 간주하여 분석한 연구(Holliday, 2008; Bachrach, & Zautra, 1985; Chavis, & Wandersman, 1990 가 있다. 공동체의식을 하나로 하여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던 전체 독립변인 중에 하나로 공동체의식을 투입하였던 상관없이 공동체의식은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공동체의식을 세부적인 요인으로 투입했을 때 각각의 요인이 주민참여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배은석, & 박해긍, 2016; 최문형, 2013, 조원섭, & 최상수, 2011; 양덕순, & 강영순, 2008; Zhao, et al., 2012)를 살펴보면, 모든 공동체의식 요인이 주민참여에 영향을

ⓒ 2018 Society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표 1〉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활동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분석모형			연구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양덕순, & 강영순(2008)	제주시 지역주민	공동체의식 (충족감/친밀감/연대감/소속감)		주민참여(주민참여의향/참여정도/참여 관심도)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향이 높음
조원섭, & 최상수(2011)	천안시 지역주민	지역사회애착도 (정체성/의존성/사회적 친분)		지역축제참여(축제참여 관심도/정도/의도)	지역 정체성과 의존성이 지역축제와 같은 이슈에 참여하려는 의도를 높임
박종관(2012)	천안시 지역주민	공동체의식 (충족감/연대감/소속감/친밀감)		주민참여(주민참여의향/참여정도)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 정도를 결정짓는 요인
최문형(2013)	서울시 지역주민	공동체의식(구성원의식/상호영향의식/필요의 통합과 충족/공유된 감정적 연계)		주민참여(정보제공형/주민주도적/협력적 참여)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 간에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음.
배은석, & 박해긍(2016)	도시/농촌 지역주민	공동체의식 (귀속성/애착성/교류성)		지역사회참여의향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인인 귀속성, 교류성, 애착성이 모두 참여의향에 영향을 줌
Holliday (2008)	지역주민	독립변수	매개변수	참여몰입	공동체의식이 구성원들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요인
		공동체의식/리더십	사회적자원/만족도/임파워먼트/참여이익		
Zhao et al.(2012)	지역주민	독립변수	매개변수	지식획득의도/지식공유의도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자신이 소속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활동의향이 강화됨
		친근성/신뢰/지각된유사성	소속감		
Bachrach, & Zautra (1985)	미국 아리조나, 농촌지역사회 주민 99명	자기효능감, 공동체의식 증가		공동체 참여	자기효능감 혹은 공동체의식 증가가 공동체 참여를 증가시킴
Davidson, & Cotte (1989)	미국 알라바마주 지역주민 546명	공동체의식		투표참여, 공공문제 참여, 지역참여, 전반적인 정치적참여	공동체의식이 높은 사람이 투표, 공공문제, 지역문제, 전반적인 정치적 참여가 높음
Chavis, & Wandersman(1990)	미국 Nashville 주민 423명	구분의 중요성, 공동체의식, 만족, 이웃관계, 임파워먼트		지역활동참여(local action)	공동체의식이 지역활동참여에 영향을 줌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간의 매개변수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자원, 만족도, 임파워먼트, 참여이익을 매개변수로 한 연구(Holliday, 2008)와 소속감(Zhao, et al., 2012)을 매개변수로 분석한 연구가 있었지만, 거주기간을 매개변수로 분석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설문조사는 2017년 9월 부터 시작하여 10월 말 까지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된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뒤 설문지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기기입식 설문방법을 사용하였다. 134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그중 응답이 불충분한 4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3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2. 측정도구

지역사회 공동체 혹은 사회조직 수준에서의 의사소통행동과 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 측정도구는 Doolittle, & MacDonald(1978), Mcmilan, & Chavis(1986), Chipuer과 Pretty(1999)의 공동체의식 측정도구를 기본으로 구성하였다. 김경준(1998)의 공동체의식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일부 항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교육학과와 지역사회개발 전문가 4인의 검토를 거쳐 평택에 거주하는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re-test)를 실시하였고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미가 모호한 문항을 수정, & 보완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7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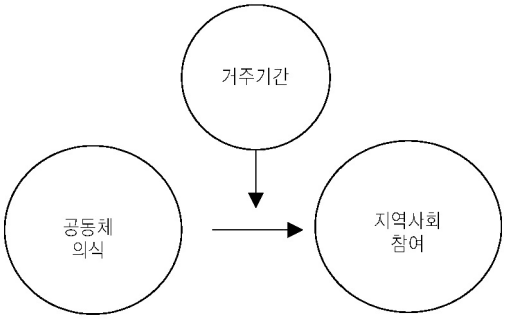
3.3. 분석방법

본 연구는 2단계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첫째,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에 존재하는 차원을 도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

법(principle components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은 다수의 변인을 상관관계가 없는 소수의 요인으로 차원을 축소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직교회전 방식의 하나인 베리맥스 회전법(varimax rotation)을 적용하였다. 베리맥스 회전법은 요인부하량을 단순화하여 요인들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요인분석에서 변수와 요인수의 선택에는 Hair et al.(2006)에 의해 제시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다. 적용 기준은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0.5이상이고, 요인고유치(eigenvalues)는 1이상이며, 요인분석 결과는 원 변량의 60% 이상을 설명할 것 등이다. 우선 요인분석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Bartlett의 구형검사(Bartlett test of sphericity)와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절성 검사(measure of sampling adequacy)를 실시하였다. Bartlett의 구형검사는 상관계수 행렬이 영행렬(zero matrix)인지에 대한 검정이며,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절성 검사는 주어진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도구로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나타난다. 표본적절성 검사 결과의 적용 기본은 0.7이상인데, 본 연구에서는 0.7이상의 값만 활용하였다.

또한 추출된 요인이 요인범주 내에서 평가항목들의 결합에서 내적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내적 일관성 분석을 하였다. 둘째, 도출된 주민역량 차원 중에서 지역사회 만족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 애착도가 주민역량과 지역사회 만족 간의 조절효과를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하였다. 변수투입방법은 단계적방법(stepwise) 방식을 하였다.

특히 조절회귀분석에서는 조절변인과 독립변인의 상호작용 항을 구성함에 있어서 단순한 변수 간 곱한 값을 사용할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실시하였다(고성희, 박형준, & 김동현, 2015; 이유재, 1994). 이러한 평균중심화를 이용하면 척도의 원점 변환에 대해 결론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동시에 다중공선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주 효과와 조절효과의 추정치가 명확하게 해석된다는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자료 분석은 SPSS(for window ver. 24)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그림 1〉 연구모델

4. 분석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50명(39.8%), 여성이 80명(60.2%)로 나타났다., 연령은 50대가 53명(40.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60대로 46명(34.8%)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월 소득은 300만 원 이상이 63명(49.2%)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3명(39.6%), 대학교 이상이 65명(48.5%)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지역의 거주기간은 10년 이하가 40명(30.3%), 11-20년이 19명(14.4%), 21-30년이 22명(16.7%), 31-40년이 24명(18.1%), 41년 이상이 27명(20.5%)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곳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6명(19.8%)이고, '부모님 때부터 살고 있는 곳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9명(14.6%)이었다. 그리고 '내가 자란 곳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1명(8.3%)이었으며, '이사 온지 오래된 곳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53명(40.5%), '최근에 이사 온 곳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2명(16.8%)으로 나타났다.

4.2. 공동체의식 요인 분석

지역주민 공동체의식 차원을 규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요인분석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단결하면 어떠한 문제도 잘 해결될 것이다', '나는 지역사회에서 좀처럼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지역주민들은 공동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 는 요인적재치가 다른 요인과 겹쳐 나타나서 제거하였다.

요인분석이 적절한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Bartlett의 구형검사를 실시하였고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절성 검사도 실시하였다.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절성 검사는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도구로서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는 지수이다. 일반적으로 이 지수값이 0.7 이상이면

ⓒ 2018 Society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130)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n= 130)	남성	50(39.8)	가정의 한 달 평균 소득 (n= 128)	100만원 미만	4(3.1)
	여성	80(60.2)		100-150만원	11(8.6)
연령 (n= 130)	50대 미만	23(18.9)		150-200만원	10(7.8)
	50대	53(40.2)		200-250만원	15(11.8)
	60대	46(34.8)		250-300만원	24(18.7)
	70대	8(6.1)		300만 원 이상	63(49.2)
학력 (n= 130)	초등학교	4(3.0)	현재 거주 하는 지역의 특성 (n= 130)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곳이다	26(19.8)
	중학교	9(6.7)		부모님 때부터 살고 있는 곳이다	19(14.6)
	고등학교	53(39.6)		내가 자란 곳이다	11(8.3)
	대학교 이상	64(48.5)		이사 온지 오래된 곳이다	52(40.5)
현재 거주 지역의 거주 기간 (n= 130)	10년 이하	38(30.3)		최근에 이사 온 곳이다	22(16.8)
	11-20년	19(14.4)			
	21-30년	22(16.7)			
	31-40년	24(18.1)			
	41년 이상	27(20.5)			

〈표 3〉 공동체의식 요인분석 결과

변 수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설명력	Cronbach's α	평균[a]
요인 1: 연대감 (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4.201	45.635	.885	2.94
이 지역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 할 수 있다	.837				3.32
지역사회는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816				3.44
이 지역에 속해 있으므로 혜택을 받고 있다	.810				3.36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정말로 나를 염려해주는 가족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	.701				3.58
우리 지역사회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668				2.95
내가 대화하고 싶을 때 당장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지역사회에서 찾을 수 있다	.572				3.42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은 힘을 모아 해결한다	.515				3.12
요인 2: 소속감 (membership)		3.598	8.033	.865	3.44
내가 노력하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780				3.54
우리 지역사회에서만 있는 고유한 정신이나 질서가 있다	.724				3.13
지역사회에서의 나의 역할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705				3.37
지역사회는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705				3.32
나는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693				3.56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664				3.54
요인 3: 정서적 친밀감 (emotional connection)		1.769	6.629	.866	3.89
이웃이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	.829				3.84
이웃이 잘 되면 나에게도 좋다	.815				3.93

설명분산의 누적값 = 60.297%, KMO = 0.90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 1265.336 (df = 78, p 〈 0.001)

주)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0.906으로 높게 나타나 요인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15개의 공동체의식 속성으로 3개 요인이 만들어졌다. 3개 요인은 총 분산의 60.297%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의 부하량은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동체의식 속성의 Cronbach α 값은 0.922였으며,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요인의 Cronbach α 값은 높은 내적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요인 1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의지할 수 있다',

'지역사회는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지역에 속해 있어서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나를 염려해주는 가족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 지역사회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내가 대화하고 싶을 때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지역주민들은 힘을 모아 해결 한다'의 7개의 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변량의 45.635%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변인은 지역사회의 연대감과 관련되어 있어 '연대감'으로 명명하였다. 연대감은 3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많은 변량(45.635)을 차지하고 있어서 공동체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요인 2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만 있는 고유한 정신이나 질서가 있다', '지역에서의 나의 역할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는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는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다른 지역주민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의 5개 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변량의 8.033%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변인은 지역사회의 소속감과 관련되어 있어 '소속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지역내의 이웃이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 '이웃이 잘 되면 나에게도 좋다'의 2개의 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변량의 6.629%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변인은 정서적인 친밀감과 관련되어 있어 '정서적 친밀감'으로 명명하였다.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이웃이 잘 되면 나에게도 좋다'가 3.93으로 가장 높을 값을 가지고 있으며, '이웃이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3.84), '우리 지역사회에 정말로 나를 염려해주는 가족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3.58), '나는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3.5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인의 평균값은 '정서적 친밀감'(3.89), '소속감'(3.44), '연대감'(2.94) 순으로 나타났다.

4.3. 거주기간의 조절효과

공동체의식(독립변수)과 지역사회참여(종속변수) 간의 관계에서 거주기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 1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21.643, p<0.01). 모형의 설명력은 33.1%이다. 공동체의식 세부적인 차원 가운데 연대감(β=.215)과 소속감(β=.241), 그리고 정서적 친밀성(β=.257)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공동체의식을 구성하여 세 가지 차원인 연대감, 소속감, 정서적 친밀감이 높아질수록 지역사회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 2는 모형 1의 지역사회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참여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18.190, p<0.01). 그리고 모형의 설명력은 35.5%이다. 지역사회 거주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p<0.05), 표준화 계수값(β)은 .174이다. 즉, 모델 2에서도 공동체의식을 구성하여 세 요인이 모두 지역사회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리고 지역사회 거주기간도 지역사회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공동체의식 높고 지역사회 거주기간이 길수록 지역사회참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델3에서는 지역사회 거주기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거주기간의 상호작용 항을 구성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설명력은 37.6%이며, 분석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16.040, p<0.05). 투입된 독립변수 가운데 공동체의식의 요인 중에서 소속감이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조절변수인 거주기간이 통

〈표 4〉 지역사회참여에 대한 위계적 조절 회귀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β	t-value	β	t-value	β	t-value
공동체성	연대감	.215	2.139*	.244	2.453*	.191	1.911
	소속감	.241	2.557*	.194	2.051*	.343	2.998**
	정서적 친밀성	.257	2.935**	.234	2.695**	.166	1.834
지역사회 거주기간				.174	2.336*	.161	2.189*
소속감 × 지역사회 거주기간						-.199	-2.241*
F Value		21.643**		18.190**		16.040*	
adjusted R^2		.331		.355		.376	
$\triangle R^2$		-		.028*		.025*	

* 종속변수: 지역사회참여, 변수투입방법: 단계적 방식(stepwise), *p〈0.05, **p〈0.01

ⓒ 2018 Society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상호작용 항 중에서 '소속감 ×지역사회 거주기간'(β=-.343)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사회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소속감은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역사회참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절변수인 지역사회 거주기간과 상호작용 항이 동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유사조절효과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고, 상호작용의 세 가지 패턴(Cohen, Cohen, West, & Aiken, 2013) 가운데 공동체의식 중에서 소속감의 β값과 지역사회 거주기간의 β값이 (+)값을 갖고, 상호작용 항의 β값 모두 (-)의 값으로 검증되어 하강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거주기간이 지역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지역사회 거주기간의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 R^2은 모형 1에서 33.1%, 모형 2에서 35.5%, 모형 3에서 37.6%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 변화량은 모형 1에서 모형 2로 2.8%만큼 증가했고($p<0.05$), 모형 2에서 모형 3으로 2.5%만큼 증가했다($p<0.05$). 둘 다 유의확률이 $p<0.05$이므로 조절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 거주기간은 지역사회참여 간의 영향관계에서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촌지역사회 주민(경기도 평택지역)들을 대상으로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 의식의 수준을 측정하고, 이들의 공동체의식과 관련된 지역사회활동 참여특성을 알아보고 공동체의식과 참여특성의 조절변인으로서 거주기간을 살펴보았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동체 의식은 '소속감', '연대감', '정서적 친밀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김경준, 1998; 예상권, 2011)에서 공동적으로 제시되었던 차원들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충족감, 영향(influence)은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요인으로 도출되지 않았다. 이것은 '영향의식' 차원이 도출된 기존의 선행연구(김경준, 1998; Chavis, & McMillan, 1990; McMillan, & Chavis, 1986)와 충족감을 제시한 선행연구(예상권, 2011)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본 연구결과에서 '영향의식'은 공동체의식의 요인으로 도출되지 않았다.

분석결과 연대감 요인이 가장 큰 변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공동체의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연대감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의해서 잘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감정이다. 그리고 정서적 친밀감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가지고 있어서 정서적 친밀감이 전체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호간 중요한 의미를 공유하는 일체감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서적 친밀감은 '감정의 공유된 연계' (McMillan, & Chavis, 1986)를 의미하는데, 구성원들이 공유된 역사, 공통장소, 함께한 시간,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친밀한 느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소속감은 membership이라고도 하는데 개인 간의 연계성을 의미한다.

모형1은 공동체의식의 세 가지 요인인 연대감, 소속감, 정서적 친밀감이 모두 지역사회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2는 모형1에 지역사회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주기간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공동체의식을 통제했을 때 거주기간만으로도 주민참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거주기간이 공동체의식에서 중요한 요소로 제기되었던 선행연구(Glynn, 1981; Lee et al., 2008; Taniguchi, 2010)와 유사한 연구결과이다. 즉 공동체의식과 거주기간이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거주기간만 주민참여를 설명하는 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존의 선행연구가 제시하지 못했던 조절효과분석의 중요한 분석결과이다.

모형3은 지역사회거주기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거주기간의 상호작용 항을 구성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투입된 독립변수 가운데 공동체의식의 요인 중 소속감이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조절변수인 거주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상호작용 항 중에서 '소속감×지역사회 거주기간'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이 조절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같은 수준의 공동체 의식을 보유한 지역주민일지라도 거주기간이 길면 지역공동체 활동에 참여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속감과 지역사회 거주기간의 상호작용 변인(소속감×지역사회 거주기간)이 주민참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같은 수준의 소속감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이지만, 거주기간이 길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수준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박종관, 2012; 배은석, & 박해긍, 2016; 양덕순, & 강영순, 2008; 조원섭, & 최상수, 2011; 박종관, 2012; 최문형, 2013; Holliday,

2008; Zhao et al., 2012)과 비슷한 결과이다. 농촌지역 주민들이 상호 감정적 작용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대감, 소속감이 생기게 되면 공동체의식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화시키는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농촌지역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이 높아지면 이웃과 관계가 원활해지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기화되며, 이를 통해 각종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농촌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지역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다양한 차원의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여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수용성과 성공을 위해 농촌주민들의 전반적인 공동체 의식과 주민참여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환경 및 여건조성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주민참여에 있어 친밀한 관계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주민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모임과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이를 위한 공간 확보도 필요하다.

둘째, 농촌지역사회의 거주기간이 지역사회활동 참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곽현근, 2004; 김경준, 1999; 김남수, 2008; 성희자, & 전보경, 2006; 양덕순, & 강영순, 2008; 우룡, 1995; Sagy, Stern, Krakover, 1996; Wilson, & Baldassare, 1996)과 비슷한 결과이다. 배은석, & 박해긍(2016)의 연구에서 지역사회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도시는 애착성이고 농촌은 거주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귀속성이라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와도 비슷한 결과이다. 농촌지역의 공동체는 거주하는 기간이 길수록 지역주민들 간 결속력 즉, 연대감이 깊어지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농촌지역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공동체의식을 높이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나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사회 공동체 의식과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농촌지역은 거주기간에 따라 농촌에서 태어나 고향인 주민,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어린 시절 부터 살아온 주민 그리고 거주한지 10년 미만의 주민도 있다. 또한 농업인이 아닌 도시에 기반을 둔 생활인으로서 거주하는 주민도 있어 기존 주민과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거주기간이 다양한 농촌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거주기간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내용과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같은 수준의 소속감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이라도 거주기간이 길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거주기간이 길면 참여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Glynn, 1988; Herbez, Asami, & Lee, 2013; Lee et al., 2008; Taniguchi, 2010)의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이며 거주 6년까지는 참여도가 높아지다가 그 이후 낮아진다는 Oropesa(1992)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농촌마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추최들은 이러한 공동체 의식의 속성과 거주기간이 주민참여에 일관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잘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마을에서 오래거주하고 있지만, 마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례들을 볼 때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다소 낮아지고 지역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이 하락함으로 지역사회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입안자나 실무진, 전문가들은 이러한 속성을 파악하여 농촌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평택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므로 다른 농촌지역의 주민들을 샘플에 포함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농촌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농촌지역사회 생활만족도 및 농촌지역사회 친밀도와 연관성을 분석하여 공동체 의식과 연관변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거주기간 이외에 농촌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참여에 대한 심층적이고 세분화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강용배. (2004). 농촌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 사례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4), 5-26.
2. 고성희, 박형준, & 김동현. (2015).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 기관장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4*(2), 51-69.
3. 곽현근. (2004). 동네조직 참여의 영향요인 및 심리적 효과. *지방정부연구, 8*(4), 381-401.

ⓒ 2018 Society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4. 권정미, & 박태영. (2014). 도농지역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1*(4), 127-154.
5. 김경준. (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6. 김기헌, 장근영, 조광수, & 박현준. (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7. 김나영. (2001).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정치교육효과 지각에 관한 연구: 대학생들의 정치지식, 기능 및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8. 김남수. (2008). 도시하천 복원이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9. 김미숙. (2005). 봉사활동이 공동체의식 함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10. 김신일. (1993). *민주적 공동체의식 형성의 과제.* 서울: 공보처.
11. 김재식. (2014).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초등 도덕과 교육의 전략 탐색.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45*, 29-52.
12. 당인숙, & 류진아. (2017). 농촌 마을만들기 참여주민의 공동체 의식 영향요인. *농촌지도와 개발, 24*(4), 265-278.
13. 민소영, & 이영순. (2014). 지역사회 환경이 여성의 지역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비판사회정책, 43*, 201-235.
14. 박가나. (2009).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6*(10), 273-306.
15. 박재숙. (2010).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4), 101-120.
16. 박종관. (2012). 지역공동체 형성전략연구: 천안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12*(7), 183-193.
17. 배은석, & 박해긍. (2016). 도농복합지역 주민의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8,* 173-199.
18. 서정아, & 조홍식. (2012).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 지역사회 자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 서재호. (2013). 주민자치 활동 참여와 공동체의식: 부산광역시 4개 동 주민자치센터주민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한국사회와행정연구, 24*(2), 437-459.
20. 성희자, & 이강형. (2013). 농촌지역 주민의 사회참여와 공동체의식이 '배타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4*(4). 315-332.
21. 신영선. (2012). 농촌마을 주민 공동체의식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2. 양덕순, & 강영순. (2008). 지역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 71-89.
23. 양순미. (2014). 농촌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어 능력과 지역사회활동참여경험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지도학회, 21*(4), 1061-1091.
24. 우룡. (1995). 아파트단지 주민의 공동체의식 형성에 관한 주민관계분석.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25. 유현희. (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한국농촌지도학회, 21*(3), 1-23.
26. 예상권. (2011). 애착도와 공동체의식이 슬로시티 지역주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대학원.
27. 은지용. (2002). 청소년봉사활동 반성경험이 시민성에 미치는 효과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8. 이영원. (2010). 지역특성에 따른 지역 정체성과 지역만족도에 대한 연구: 전주, 무주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9*(2), 252-277.
29. 이인정, & 최해경. (1995). *인간환경과 사회환경.* 서울: 나남출판사.
30. 이유재. (1994). 상호작용효과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주효과의 검증에 대한 연구. *경영학연구, 23*(4), 183-210.
31. 이형아. (2005). 대도시지역 노인과 농촌지역 노인의 공동체의식 관련요인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28*, 231-254.
32. 이춘옥. (2000). 공동체의 우리의식과 노년기의 삶의 질.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33. 임광명. (2017). 농촌지역사회 공동체의식 유형별 지역사회활동 참여 특성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4*(4), 237-248.
34. 임광명, & 박덕병. (2015). 대학생의 공동체 의식 유형별 학교 및 지역사회활동 참여 특성 분석. *한국농·산업교육학회, 47*(4), 53-72.
35. 정수복. (1995). *공동체의식과 시민운동.* 서울: 공보처.
36. 조원섭, & 최상수. (2011). 천안시민의 지역사회 애착도가 지역축제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3), 449-459.
37. 최문형. (2014).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38. 최선옥. (20098). 아파트주민의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39. 한은영, & 김미강. (2013).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3,* 95-124.

ⓒ 2018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40. 홍영옥, & 채혜원. (2004).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입주자관리, 공유공간 만족도와 지역공동체의식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95-105.

41. Angell, R. C. (1928). *A study of contemporary undergraduate life in the American University*. New York, NY: Appleton.

42. Bachrach, K. M., & Zautra, A. J. (1985). Coping with a community stressor: The threat of a hazardous waste facil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6*(2), 127-141.

43.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44. Bonus, S., Woods, Jr. B. H., & Chan, K. C. (2005).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among students on religious collegiate campuses in the christian evangelical traditi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4,* 19-40.

45. Carnoy, M. (1972). An empirical study of powerless among high school students. *High School Journal, 55,* 353-354.

46. Chipuer, H. M., & Pretty, G. M. H. (2000). A review of the sense of community index: Current uses, factor structure, reliability, and futher development.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6), 643-658.

47. Chavis, D. M., & Wandersman, A. (1990). Sense of community in the urban environment: A catalyst for particip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1), 55-81.

48. Davidson, W. B., & Cotte, P. R. (1989). Sense of communi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7*(2), 119-125.

49. Doolittle, R. J., & MacDonald, D. (1978). Communication and a sense of community in a metropolitan neighborhood: A factor analytic examination. *Communication Quarterly, 26*, 2-7.

50. Durkheim. E. (1964).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New York, NY: Free Press of Glencoe.

51. Feldman, K. A., & Newcomb, T. M. (1969). *The impact of college on students: Vol. 1. An Analysis of four decades of research. San Francisco*. LA: Jossey-Bass.

52. Glynn, T. (1981).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Measurement and application. *Human Relations, 34,* 780-818.

53. Gusfielddd, J. R. (1975). *The community: A critical response*. New York: Wiley.

54.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pp. 207-219).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55. Herbez, P. Asami, Y., & Lee, S. (2013). Community participation in Tokyo and its suburbs: The importance of savings and interaction effects. Retrieved from www.csis.u-tokyo.ac.jp/123.pdf

56. Hughey, J., & Speer, P. W. (2002). Community, sense of community, and networks. In A. T. Fisher, C. C. Sonn, & B. J. Bishop (Ed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Research, applications, and implications (pp.69-84). New York, NY: Kluwer Academic/Plenum.

57. Kingston, S., Mitchell, R., Florin, P., & Stevenson, J. (1999). Sense of community in neighborhoods as a multi-level construct.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6,* 681-694.

58. Lee, S., Saito, T., Takahashi, M., & Kai, I. (2008). Volunteer participation among older adults in Japan: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participation and reasons for non-participation.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47*(2), 173-187.

59. Long, D. A., & Perkins, D. D. (2008). Community social and place predictors of sense of community: A multilevel and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5,* 563-581.

60. Lunsbury, J. W., & DeNeui, D. (1996). Collegigat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in relation to size of college/university and extroversion. *Jou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 381-394.

61. Mannarini, T., & Fedi, A. (2009). Multiple sense of community: The experience and meaning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7,* 211-227.

62. Manzo, L., C., & Perkins, D. D. (2006). Finding common ground: The importance of place attachment to community participation and planning.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20,* 335-350.

63. McMillan, D., & Chavis, D.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64. Obst, P., Smith, S. G., & Zinkiewicz, L. (2002). An exploratiojn of sense of community, part 3: Dimensions and predictors of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in geographical communiti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1), 119-133.

65. Oropesa, R. S. (1992). Social Structure, Social Solidarity, and

ⓒ 2018 Society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Involvement in Neighborhood Improvement Associations. *Sociological Inquiry, 62*(1), 107-118.

66. Peterson, N. A., Speer P. W., & Hughey, J. (2006). Measuring sense of community: A method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factor structure debat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4*(4), 453-469.
67. Pretty, G. H. (1990). Relating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to social climate characteristic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 60-65.
68. Royal, M. A., & Rossi, R. J. (1996). Individual level correlates of sense of community: Findings from workplace and school.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4), 395-416.
69. Schiff, J. (1990). Charitable giving and government policy. An economic analysis. NY, New York: Greenwood Press.
70. Taniguchi, H. (2010). Who are volunteers in Japna?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9*(1), 161-179.
71. Townley, G., Kantz, J., Wandean, A., Skiles, B., Schillaci, M. J., Timmerman, B. E., & Miusseau, T. A. (2013). Exploring the role of sense of community in the undergraduate transfer student experienc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1,* 277-290
72. Tropman, J. E. (1969). Critical dimensions of community structure: A reexamination of the Hadden- Borgotta findings. *Urban Affairs Quarterly, 5,* 215-232.
73. Sanchez, B., Colon, Y., & Esparza, P. (2005) The role of sense of belonging and gender in the academic adjustment of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6), 619-628.
74. Unger, D. G., & Wandersman, A. (1982). Neighboring in an urban environ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 493-509.
75. Verba, S., Schlozmna, K. L., & Brady, H. E.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76. Wilson-Doenges, G. (2000). An exploration of sense of community and fear of crime in gated communiti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5), 597-611.
77. Wiseman, R. L., Gonzales, S. M., & Salyer, K.(2004). A cross-cultural analysis of students sense of community, degree of involvement, and educational benefits. *International Communication Studies, 13,* 173-189.

Received 27 July 2018; Revised 19 2018; Accepted 14 September 2018

Dr. Duk-Byeong Park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Kongju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focus on rural tourism, tourism marketing, and tourism development.
Address: (32439)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College of Industrial Scie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54 Daehak-ro, Yesan-eup, Yesan-gun, Chungcheongnam-do, South Korea
E-mail) parkdb84@kongju.ac.kr
phone) 82-41-330-1383

Dr. Kwang-Myeong Lim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the Pierson College, Pyeongtaek University,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focus on Sense of Community, Personality Education and Personality test
Address: (3825) Pyeongtaek University, 3825 Seodong-daero, Pyeongtaek-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E-mail) lkm3719@ptu.ac.kr
phone) 82-31-659-8387

Jae-Moon Ahn is a doctoral candidate at the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Kongju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focus on rural development and rural education
Address: (32439)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College of Industrial Scie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54 Daehak-ro, Yesan-eup, Yesan-gun, Chungcheongnam-do, South Korea
E-mail) charity404@kongju.ac.kr
phone) 82-41-330-1540

ⓒ 2018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